



13. 말이 나온 김에 SNS를 이용해 봐야겠다

학습목표 ‘-(으)ㄴ/는 김에’를 사용하여 어떤 상황에 이어서 그것을 계기로 다음의 행위도 함께 함을 표현할 수 있다.
학습내용 -(으)ㄴ/는 김에

 **생각해 봅시다**



- 스마트폰의 기능에는 뭐가 있어요?
- SNS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본문**

(거실에서 엄마와 지호가 대화. 엄마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다)

지호 (엄마의 휴대폰을 보며) 엄마, 스마트폰 새로 사셨어요?

엄마 응. 쓰던 휴대폰이 고장 나서 새로 샀어.

지호 (휴대폰을 만져 보며)와~ 좋아 보여요. 스마트폰을 써 보시니까 예전 것보다 더 편리하고 좋지요?

엄마 (생각하며)음... 지난 번 휴대폰에 비하면 기능이 많아서 좋은 건 확실한데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그냥 통화할 때나 사진 찍을 때만 써.

지호 에이~ 어렵더라도 스마트폰을 샀으면 기능을 적극적으로 다 이용하셔야지요. SNS를 이용하시면 엄마 친구분들과 소통하기도 편하잖아요.

엄마 SNS? 그게 뭐니?

지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거죠. 자기의 일상 생활이나 생각 등을 이야기하는 공간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어요.

엄마 아~ 요즘 그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어.

지호 스마트폰을 산 김에 SNS를 시작해 보세요. 인맥을 쌓거나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아주 편리해요.

엄마 그래! 말이 나온 김에 나도 오늘 SNS를 이용해 봐야겠다.

- 도입 질문**
1.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2. 스마트폰은 기존의 휴대 전화와 다른 기능이 뭐가 있어요?
 3. 스마트폰의 어떤 기능을 자주 이용해요?
 4. 스마트폰이 없다면 뭐가 제일 불편할 것 같아요?

- 본문 학습 순서**
- 1) 도입 질문을 한다.
 - 2) 본문을 듣기 전, 도입 그림을 보고 본문 내용을 유추해 본다.
 - 3) 자막을 보지 않고 듣는다.
 - 4) **이해 질문 1(포괄적인 내용 파악)**을 한다.
 - 엄마는 무엇을 샀습니까? (답: 스마트폰)
 - 지호는 엄마에게 스마트폰의 어떤 기능을 이용하라고 말할니까?(답: SNS)
 - 엄마는 SNS 이용에 대해 어떤 반응입니까? (답: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 5) 질문 4)의 답을 옆두에 두고 다시 듣는다.
 - 6) 4)의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해 질문 2(세부적인 내용 파악)**을 한다.
 - 새로 산 스마트폰에 대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 기능은 많지만 사용하기가 어렵다.)
 - SNS를 이용하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답: 인맥 쌓기, 사람들과 소통, 정보 공유)
 - 7) 새 어휘를 설명한다.
 - 8) 한 문장씩 듣고 따라 하게 한다.
 - 9) 학습자가 본문을 읽는다. (혼자 또는 짝지어)
 - 10) 상황에 맞게 감정을 실어 읽는다.
- *상황(학습자의 수와 학습 정도, 교실 상황 등)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내용 이해 질문**

(1) 엄마는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을 잘 사용하고 있다. (O, X)

답: (X) 엄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기가 어려워 전화를 받거나 사진 찍을 때만 사용한다고 했다.

(2) 엄마는 오늘부터 SNS를 사용해 보려고 한다. (O, X)

답: (O) 엄마는 말이 나온 김에 오늘부터 SNS를 사용해 보겠다고 했다.

 **어휘**

	so far	적극적	active
기능	function	공간	place, space
소통하다	to communicate with	공유하다	to share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인맥	personal connection
페이스북	facebook		

기능: 하는 일, 작용

- 요즘 스마트폰은 정말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 이 전자 사전에는 사전 말고 다른 기능이 별로 없네요.
- 세탁기가 오래 되어서 그런지 세탁 기능이 떨어진다.

적극적: 태도가 긍정적이고 스스로 먼저 하려고 함

- 학생들이 이번 연극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 그 사람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다.
- 그의 적극적인 자세가 마음에 든다.

소통하다: 막히지 않고 잘 통하다, 오해가 없이 뜻을 잘 통하다

- 경찰은 한쪽 길을 막고 다른 쪽으로만 소통하도록 신호를 했다.
- 언어가 달라서 외국인 친구와 생각을 제대로 소통할 수가 없어 답답했어요.
- 언어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수화로 자신의 생각을 소통한다.

공유하다: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사람과 나누다

-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 이 모임의 목적은 자신의 언어 공부 방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 이 기쁨을 전 국민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인맥: 정치, 경제, 학문 세계에서 쌓아둔 사람들과의 관계

- 아직도 그 사회는 능력보다 인맥을 중요시한다.
- 그 사람은 사업에서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 학교 인맥으로 승진한 사람이 있다던데 누구일까요?

 **문법학습**

-(으)ㄴ/는 김에

어떤 일에 이어서, 그것을 계기나 기회로 삼아 계획하지 않았던 다른 일도 함께 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청소한 김에 빨래도 하자’: 청소를 이미 했으니 그 기회에 계획에는 없었지만 청소와 관계가 있는 빨래도 하자는 것을 나타낸다.

- ① 시장에 가는 김에 과일도 사 오세요.
- ② 청소를 하는 김에 빨래도 해야겠어요.
- ③ 백화점에 간 김에 신발도 새로 샀어.
- ④ 일찍 일어난 김에 운동을 좀 했어요.
- ⑤ 케이크를 먹는 김에 커피도 마시고 싶어요.

‘-(으)ㄴ/는 김에’ 동사 제시 순서

가다 : 가는 김에

먹다 : 먹는 김에

공부하다 : 공부하는 김에

돕다 : 돕는 김에

듣다 : 듣는 김에

부르다 : 부르는 김에

만들다 : 만드는 김에

문장 만들기

‘-(으)ㄴ/는 김에’를 사용하여 선행문에 알맞은 후행문 만들기

- 떡볶이를 만드는 김에 _____.
- 숙제를 하는 김에 _____.
- 가구를 바꾸는 김에 _____.
- 우체국에 간 김에 _____.
- 한국에 놀러 온 김에 _____.
- 마음 먹은 김에 _____.

대화 연습하기

지나 : 오늘 옷 사러 백화점에 갈 거야?
유리 : 응, 옷 사는 김에 구두도 하나 살까 해.

민 : 소포 부치러 우체국에 다녀올게.
지호 : 우체국에 가는 김에 내 편지도 좀 부쳐 줄래?

지호 : 어머니, 책상 정리 다 했어요.
어머니 : 그래? 그럼 책상 정리 시작한 김에 옷장도 좀 정리할래?

지나 : 와! 쿠키도 만드시네요.
어머니 : 응, 빵 만드는 김에 쿠키도 좀 만들려고 해.



심화학습

1. 이미 일어났거나 일어날 상황에 이어서 그것을 계기로 다음의 행위도 함께 함을 나타낸다.

- 오랜만에 만난 김에 식사나 합시다.
- 말이 나온 김에 다음 달에 제주도에 갈까요?
- 비웃을 사는 김에 장화도 사자.
- 부산에 가는 김에 회도 드시고 오세요.
- 목욕을 하는 김에 목욕탕 청소까지 해 버렸다.

2. ‘-(으)ㄴ/는 김에’는 후행절에 서술, 의문, 명령, 권유 등 다양한 문장에 쓰일 수 있다.

- 경주에 간 김에 가까운 부산에도 갔다.
- 경주에 간 김에 가까운 부산에도 가자.
- 경주에 간 김에 가까운 부산에도 가라.
- 경주에 간 김에 가까운 부산에도 가지 그랬어?

3.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와 같은 속담은 우연히 운 좋은 기회에 하려던 일을 해치운다는 뜻이다.

-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부산에 온 김에 회나 먹고 가지요.

‘-(으)ㄴ/는 김에’는 동사와 결합하며 동작의 완료성에 따라 ‘-(으)ㄴ 김에’와 ‘-는 김에’가 결정된다.

시장에 가다(미완료)>시장에 가는 김에
일찍 일어났다(완료)>일어난 김에

이 밖에도 ‘넘어진 김에 쉬어 가자’는 속담도 있다.

예)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고 이번에 실직한 김에 아예 두세 달 쉬면서 천천히 준비하지 그래요?



1. 빈 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십시오.

공유하는 기능 여태 소통할 적극적으로

- 1) 이 노트북은 기능 이 많아서 좋아요.
- 2) 12시가 됐는데 여태 집에 안 오고 뭐 하니?
- 3) 이 자료는 모두 함께 공유하는 게 좋겠어요.
- 4) SNS를 하니 여러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 좋아요.
- 5) 좋아하는 친구에게 네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봐.

해설 : 1) 이 노트북은 기능이 많아서 좋아요.
 2) 12시가 됐는데 여태 집에 안 오고 뭐 하니?
 3) 이 자료는 모두 함께 공유하는 게 좋겠어요.
 4) SNS를 하니 여러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 좋아요.
 5) 좋아하는 친구에게 네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봐.

2. <보기>와 같이 빈칸에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보기>
 서점에 _____ 한국어 책을 샀어요.
 ① 간 김에
 ② 가는 김에
 ③ 오는 김에

- 1) 집에 일찍 _____ 청소를 했어요.
 - ① 온 김에
 - ② 올 김에
 - ③ 오는 김에.

해설 : ②에서 ‘올 김에’는 사용하지 않는 형태이며 미래를 나타낼 때 ‘-는 김에’의 형태를 사용한다. ③에서 ‘오는 김에’는 뒤의 청소를 한 행위보다 앞서므로 과거형으로 써야 한다.

- 2) _____ 친구 선물도 살까 해요.
 - ① 쇼핑하는 김에
 - ② 친구가 좋은 김에
 - ③ 친구 선물을 사러 나온 김에.

해설 : ②‘-는 김에’는 동작 동사하고만 결합할 수 있다.③은 ‘-는 김에’는 원래 하려던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의 내용이 후행에 와야 한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는 선행문과 후행문의 목적이 ‘친구 선물을 사다’로 같으므로 의미상 옳지 않은 문장이다.

1. 어휘 연습

- 2) = 지금까지, 이제까지
- 3) ‘-는 게 좋겠다’의 문형과 결합함에 주의한다.
- 5) ‘적극적인 N’, ‘적극적으로 AV’로 쓰임에 주의한다.

2. 문법 연습

- 문법 정보를 다시 확인한다.
- [-(으)ㄴ/는 김에]
- 기회, 계기
- 동사와 결합
- 동사의 완료성에 따라 ‘-(으)ㄴ 김에’와 ‘-는 김에’가 결정됨
- 결합하는 동사가 문맥 상 완료된 상태인지 아닌지에 주의해야 한다.
- 예) 집에 일찍 왔다/ 청소를 했다
 •→ 집에 일찍 온 김에 청소를했다. (O)
 •→ 집에 일찍 오는 김에 청소를 했다. (X)
- 학습자가 답항을 보기 전에 스스로 문장을 연결해 보도록 지도한다.
- 학습자가 문장을 직접 연결할 때는 학습자 급에 알맞은 문형과 어휘를 사용하도록 한다.
- 예) 고급 학습자
- ① 집에 일찍 와서 청소를 했어요.
- ② 집에 일찍 온 김에 청소를 했어요.
- ①, ② 모두 의미상 맞는 문장이지만 고급 학습자는 ①보다 ②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3) 빨래를 하는 김에 _____..

- ① 좀 쉬어야겠어요.
- ② **운동화도 빨아야겠어요.**
- ③ 친구하고 전화할 거예요.

해설 : 원래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빨래를 하면서 운동화도 빨겠다는 뜻이다. 빨래를 하면서 그것을 계기로 뭔가 관계 있는 다른 일도 더 하려는 것인데 ①의 후행문의 '쉬다'가 내용상 어울리지 않는다. '-는 김에'를 쓸 때는 선행문과 후행문의 행동에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③은 빨래와 친구하고 전화하는 것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문장의 의미상 맞지 않는다.

3. 대화를 잘 듣고 <보기> 와 같이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지나가 나가려고 함. 지나 엄마가 사과가 담긴 봉투를 주는 그림)
 지나: 엄마, 유리네 집에 갔다 올게요.
 엄마: _____
 ① 유리네 집에 가는 김에 사과 좀 사올래?
 ② 유리네 집에 가는 김에 유리가 사과를 좋아할까?
 ③ **유리네 집에 가는 김에 유리 엄마한테 사과 좀 갖다 줄래?**

1) (민이 상자를 들고 있고 옆에서 지호가 편지 봉투를 내민다.)

민: 소포 보내러 우체국에 다녀 올게.

지호: _____

- ① 소포를 보내는 김에 내 편지도 보냈어?
- ② 우체국에 간 김에 네 편지도 가지고 왔어.
- ③ **우체국에 가는 김에 내 편지도 좀 보내 줄래?**

해설 : '지호는 소포 보내러 우체국에 가는 민에게 다른 일을 부탁하고 있다. ①은 과거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맞지 않다. ②는 민이 우체국에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 * 소포: parcel

2) (엄마가 쿠키를 만들고 그 앞에서 지나가 웃고 있다)

지나: 와! 빵도 만드셨는데 이제 쿠키도 만드시네요!

엄마: _____

- ① 응, 쿠키 만든 김에 좀 먹어 봤어.
- ② 네가 쿠키를 먹는 김에 좀 만들었어.
- ③ **응, 빵 만든 김에 쿠키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해.**

해설 : 지나는 엄마가 쿠키를 만드는 것을 보며 말했다. ①과 ②는 엄마가 빵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 지나의 말과 어울리지 않는 대답이다.

3. 대화 연습

- 자연스러운 담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연습이다.
- 정답 이외의 질문을 학습자가 스스로 만들어 보도록 한다.
- 예)
 - A. 오늘 옷 사러 백화점에 갈 거야?
 - B. 응, 옷 사는 김에 구두도 하나 살까 해.
 - B'. 응, 백화점에 가는 김에 근처에 있는 친구 회사에도 들러 거야.

3) (지나와 유리의 전화 통화 - 지나의 머리 위 말풍선에는 옷, 유리의 말풍선에는 구두 그림)

지나 : 오늘 옷 사러 백화점에 갈 거야?

유리: _____

- ① 응, 백화점에 간 김에 친구를 만났어.
- ② **응, 옷 사는 김에 구두도 하나 살까 해.**
- ③ 응, 백화점에 간 김에 모자 구경 좀 했어.

해설 : 지나는 유리가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갈 거냐고 물었고 유리는 옷도 사고 모자도 살까 한다고 이야기한다. ①과 ③은 질문과 관계없는 과거형 대답이다.

과제

여러분은 언어를 배우러 유학을 간 적이 있습니까? 유학 간 나라에서 다른 것도 배워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유학을 간다면 어느 나라에 갈 것인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 유학하는 김에 어떤 것도 배울 것 인지를 그 이유와 함께 써 봅시다.

- ‘-(으)ㄴ/는 김에’를 사용해야 한다.
- 문어체(‘-다, ㄴ/는다’)로 써야 한다.
- 400~600자 정도로 써야 한다.

예시답변

나는 한국어를 배우러 한국에 유학을 가고 싶다. 그리고 한국에 가는 김에 꼭 태권도도 배워 보고 싶다. 올림픽에서 태권도 하는 선수들을 봤는데 참 멋있어 보였다. 그리고 태권도를 배우면 위험할 때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여자들도 배우면 좋을 것 같다. 한국은 태권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말로 태권도를 배우면 더 좋을 것 같다.

<이하 생략>

도입 질문

- 유학을 간 경험이나 앞으로 갈 계획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어디로 무엇을 배우러 갈 것인가?
- 또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작문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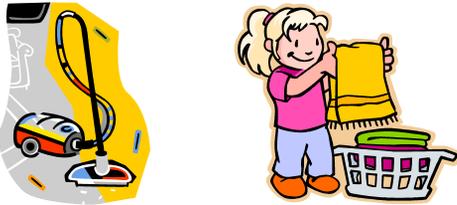
- 지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문형, 문체, 길이)
- 글의 구성이 짜임새 있어야 한다. (처음-중간-끝)
- 단락이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
- 학습 수준에 맞는 문형과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함께 풀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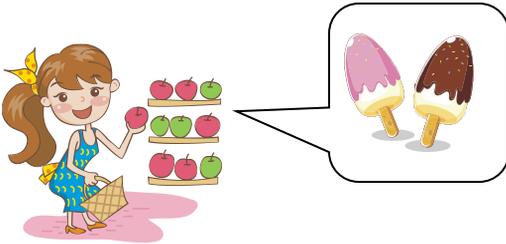
1. ‘-(으)니/는 김에’를 사용하여 다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 1) 오늘 네가 밥 _____ 커피도 사는 게 어때? (사다)
- 2) 백화점에 _____ 옷 좀 샀어요. (가다)
- 3) 물고기를 _____ 새우도 키워 봐. (키우다)
- 4) 오랜만에 친구를 _____ 같이 영화도 봐야겠어. (만나다)

2.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 1) 엄마: 어머, 지나야! 빨래도 했니?
지나: 네. _____ 빨래도 했어요.



- 2) 지나: 와! 아이스크림이다! 엄마가 사 오신 거예요?
엄마: 응. 시장에 _____ 우리 지나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사
왔어.



- 3) 아빠: 아침 일찍 어딜 다녀오니?
지호: 일찍 _____ 운동 좀 하고 왔어요.



함께 풀어봅시다 (답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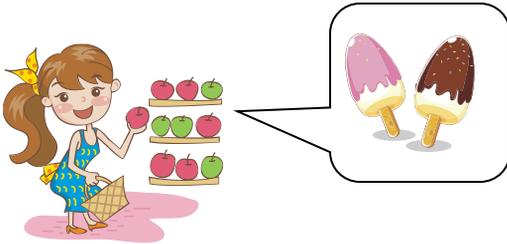
1. ‘-(으)니/는 김에’를 사용하여 다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 1) 오늘 네가 밥 사는 김에 커피도 사는 게 어때? (사다)
- 2) 백화점에 간 김에 옷 좀 샀어요. (가다)
- 3) 물고기를 키우는 김에 새우도 키워 봐. (키우다)
- 4)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김에 같이 영화도 봐야겠어. (만나다)

2.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 1) 엄마: 어머, 지나야! 빨래도 했니?
지나: 네. 청소하는 김에 빨래도 했어요.



- 2) 지나: 와! 아이스크림이다! 엄마가 사 오신 거예요?
엄마: 응. 시장에 간 김에 우리 지나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사 왔어.



- 3) 아빠: 아침 일찍 어딜 다녀오니?
지호: 일찍 일어난 김에 운동 좀 하고 왔어요.